

SAMC | LAW REVISION

1. 對EU 철강제품 수출신고 시 철강협회 승인번호 기재하세요

최근 개정된 「수출입 공고」 로 3월 4일부터 철강제품(HSK 6단위 기준 : 66개 품목)이 對EU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EU로 철강제품을 수출하려면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對EU 한국産 철강제품 수출 쿼터제 시행에 따른 '對EU 수출제한 철강제품의 수출통관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2월 28일 전국 세관에 안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출자는 수출신고란 사항에 철강협회 수출승인서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동 협회 수출승인서를 전자 제출해야 한다

[Read More](#)

2. 위험도 낮은 물품도 'AI 심사 대상'에 포함

앞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수입하는 물품 외에 위험도가 낮은 물품도 전자통관심사(AI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보세화물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제도를 허용하는 등 신속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월 5일 입안예고했다. 먼저 수입통관 관련 업무량을 줄이고, AEO 업체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AI 심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Read More](#)

3.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엔 HS 10단위가 아닌 6단위 확인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신속한 회신을 위해 HS 6단위 소호까지만 통지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빠른 결정을 위해 서면심사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2월 25일 입안예고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中 전자제품 유해물질 인증절차 축소 등 해외기술규제 15건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당사국과 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3월 11일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해외 기술규제 36건에 대해 18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고, 그중 업계의 우려가 큰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 등 6건에 대해서는 미국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와 함께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Read More](#)

2. 한·터키 AEO MRA 3월 1일부터 전면 이행

3월 1일부터 한·터키 AEO MRA가 전면 이행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AEO 수출기업은 터키에서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2011년 10월 터키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14년 6월 최종 서명을 거쳐 올 3월 1일부터 전면 이행에 들어간다고 2월 28일 밝혔다. 그동안 양국은 AEO MRA 혜택에 대한 세부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실무회의에서 AEO 화물인식 시스템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MRA 혜택제공 절차 등을 논의해왔다.

[Read More](#)

3. 담보 면제요건 완화, 범규준수도 낮아도 담보제공 면제 가능

중소 수출입기업이 좀 더 쉽게 담보 면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 면제대상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범규준수도가 낮아도 담보제공 면제가 가능해졌고, 담보 면제자격 확인 유효기간도 없었다. 관세청은 美·中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이 자금 부담을 덜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中, 3월 25일부터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발행

3월 25일부터 중국 측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전자적 발급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기존 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도 병행·유지한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은 중국 해관총서가 업무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업의 통관비용을 낮추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자가인쇄 개혁'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으며, 중국 측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변경 동향 등을 3월 25일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해관총서는 3월 25일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Read More](#)

2. . 한-미 FTA CBP 원산지 사후검증 강화

FTA 체결 협정의 다원화 및 미중 무역분쟁 등의 이슈로 인하여, 최근 FTA 사후검증이 강화되고 있으며 검증 대상 기업에 요구 되는 자료 또한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CBP(미국 관세청)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먼저, CBP 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목적은 원산지의 적합성 검증 및 원산지 결정 기준 및 품목분류 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수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투입 된 원재료에 대한 입증자료의 상세 내용을 요구 하고 있다.

[Read More](#)

3. 英 하원, 1표차로 '노딜 브렉시트' 배제안 통과...추가 연기 전망

영국(Britain)이 45년간 회원국으로 있었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을 탈퇴(exit)하는, 이른바 브렉시트(Brexit)의 날인 4월 12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영국 하원은 4월 12일 기한까지 EU 탈퇴 협정이 승인되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 시점을 추가 연기하는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는 5월 말 유럽의회 선거 전까지 브렉시트 시점을 미루는 방안을 두고 협상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업자가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고서류 제출 기한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 보고하려는 경우 최초 보고기한과 동일하게 생산전후 7일 이내 보고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검사실 또는 시험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가 개정되었다.

[Read More](#)

2. 수입식품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규정 일부 개정고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시행규정의 제출을 명문화 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식품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을 정비하고 교육시행규정의 제출의무를 명확히 하며 강의실 바닥면적 의무규정, 교육관리자 교수기간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는 하였다. 또한 교육기관 운영평가표도 조정하였다.

[Read More](#)

3.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이 행정 예고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하고,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을 고시 한다.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URTHER GUIDANCE

1. 對美 및 對 EU 철강재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 안내

2019년 2월 한국철강협회에서는 대외무역법 제 11조 제 1항 내지 제 5항의 규정 및 수출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9호)에 의하여 철강품목에 대한 수출승인 요령을 공고하였습니다. 철강재를 미국 및 EU 지역으로 수출 시 한국철강협회 승인을 받아야 면허 가능 하니 참고 바랍니다

1) 수출규정

- 1) 법적 근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수출입공고 제5조 철강재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
- 2) 적용 범위 : 대외무역법 제11조, 수출입공고 제5조 별표2규정에 의하여 전체 철강재**에 적용
 (**상세 HS CODE 및 품목은 뒷 장 [별표 2]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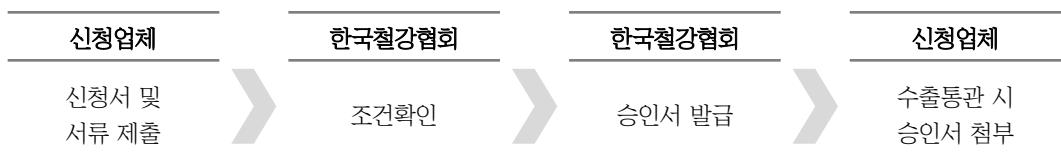
2) 신청서 작성 방법

구분	신청서 작성 주소
對美 철강수출	http://sq.kosa.or.kr/home/main.aspx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對EU 철강수출	http://sqeu.kosa.or.kr/user/login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3) 제출서류 안내

- 1) 수출승인신청서
- 2) 한-미 및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1부
- 3) 인보이스(Invoice), 패키리스트(P/L), 선하증권(B/L) 1부 (선하증권의 경우 사후제출 가능)
- 4) 신청제품 및 소재(HS7206~7306)의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각 1부
- 5)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1부

4.) 승인절차



SAMC | FURTHER GUIDANCE

2. 한-미 FTA CBP 원산지 사후검증 동향 안내

FTA 체결 협정의 다원화 및 미중 무역분쟁 등의 이슈로 인하여, 최근 FTA 사후검증이 강화되고 있으며 검증 대상 기업에 요구 되는 자료 또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CBP(미국 관세청)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동향 안내 드립니다.

1) CBP 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목적

- 1) 원산지의 적합성 검증
- 2) 원산지결정기준 및 품목분류 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수입 되었는지 여부

2) 입증자료의 구체적인 요청

투입 된 원재료에 대한 상세 내용 및 제조국, 공급자, 원산지의 증빙 등을 상세하게 요구 하고 있음

No.	기 존	최근 동향
1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또는 입증서류
2	BOM : 하기 내용 포함 (1) HS CODE (2) 원산지	BOM : 하기 내용 포함 (1) 규격 등 물품 내용 상세 (2) HS CODE (3) 제조국 및 원산지 여부 (4) 공급자 및 공급자 주소
3	제조공정도	제조공정도
4	각 원산지재료의 원산지증명 및 진술	1년 이내 발행 된 원산지재료의 증명 및 진술 1년 이내 발행 된 비원산지재료의 증명 및 진술 (상기 내용은 HS CODE가 포함 된 자료)
5	원산지 결정기준 및 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 결정기준 및 결정기준 충족여부

3) 기타 고지사항에 대한 명시

기존 별도 고지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확대조사, 기밀요청 등에 대한 고지사항을 공식적으로 명시함

No.	구 분	고지사항
1	확대조사	해당 검증의 결과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입증서류 상 분 건과 동일한 HTS 번호를 기재한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의 모든 수입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기밀요청	본 요청 건 관련 CBP 의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 되어야 함
3	의무불이행	CFR 법령에 근거하여 서류 미 제출 시 19 USC 1509(g)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SAMC | FURTHER GUIDANCE

3. 브렉시트(Brexit) 협상에 따른 동향안내

영국(Britain)이 45년간 회원국으로 있었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을 탈퇴(exit)하는, 이른바 브렉시트(Brexit)의 날인 4월 12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3차 브렉시트 합의안까지 부결 되는 등 유럽 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바, 향후 대응을 위하여 現 동향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1) 진행경과 및 동향안내

2019년 3월 29일 제3차 승인투표 부결에 따라 향후 노딜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증가 되었습니다.

- 2016.06.23 영국 브렉시트 결정
- 2018.11.25 영국 - EU와의 탈퇴협정 합의
- 2019.03.14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 시 6월 30일 까지 브렉시트 연기 결정
- 2019.03.20. 영국은 EU 에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연기 요구
- 2019.03.21. EU와 영국, 4월 12일 까지 브렉시트 연기 합의 및 의향투표 실시 결정
- 2019.03.29. 브렉시트 제3차 승인투표 실시 및 **부결**
- 향후대안 {
 - 2019.04.12. 노딜브렉시트 (No-deal Brexit) (추가연기 협의 중)
 - 2019.05.23. 또는 유럽의회선거에 참여 조건으로 브렉시트 장기연기

2)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에 따른 분야별 전망

2019년 4월 12일 최종 노딜브렉시트가 결정되는 경우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No.	분야	분야별 전망
1	교역요건	英-EU간 관세부과, 인증 및 통관절차 복잡
2	관 세	모든 국가에 기본세율 적용 (FTA 특혜세율 적용 비대상/ 한-영 FTA 추진 중)
3	인 증	영국 인증 추가획득, EU 라벨링 변경, 수출입 대리인 자격 강화 등
4	통 관	EU 역내국 포함 모든 수입품에 대한 신규 통관절차 도입 가능성
5	내 수	영국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 우려
6	투 자	EU 및 영국 기업들의 對英 투자결정 지연 및 축소 우려